

# K리그 팀들 전남으로...코로나시대 전훈지 각광

### 운동장 상태 좋고 날씨·음식 만족 FC안양, 벌교서...안산은 고흥서 서울이랜드, 목포에서 훈련 중 광주FC·전북현대도 목포행 준비

K리그 구단들이 전남을 '약속의 땅'으로 삼았다. '무관중 2020시즌'을 아꼈던 코로나19가 2021시즌 전지훈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겨울 해외로 나가 시즌 준비를 했던 각 구단은 코로나19에 발이 묶이면서 국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양을 홈구장으로 하는 전남드래곤즈는 물론 광주FC, 서울이랜드, 안산그리너스, FC안양이 따뜻한 기후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전남을 새 시즌을 위한 전초기지 삼았다. 전남은 안방인 광양에서 30일까지 1차 훈련을 하

면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 2월에는 남해로 건너가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축구센터에서 워밍업을 한 뒤 지난 1일 남해로 건너갔던 광주FC는 두 번째 행선지로 목포를 선택했다. 김호영 감독으로 새 판을 짜 광주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목포에서 2021시즌 청사진을 그린다. 이미 목포에 훈련 캠프를 차린 팀도 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서울이랜드는 지난 4일 목포에 짐을 풀었다. 목포는 정 감독에게 반가운 곳이다.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시절 목포를 훈련지로 삼아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뤘다. 서울이랜드 지휘봉을 잡고 프로에 뛰어든 지난 시즌에도 태국 전지훈련에 앞서 목포에서 밸런스를 잡았다. 그리고 K리그2에서 서울이랜드의 돌풍을 일으켰다. 29일 목포 훈련을 마무리하는 서울이랜드는 내달 1일 서귀포로 건너가 실전감각을 끌어올린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는 마지막 담금질 장소

로 목포를 염두에 두고 훈련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안산그리너스와 FC안양은 고흥과 벌교를 '약속의 땅'으로 삼았다. 안산은 홈에서 소집훈련을 한 뒤 지난 11일 고흥으로 발걸음을 했다. 체력훈련에 비중을 두고 전지훈련을 진행한 안산은 31일까지 고흥에 머물면서 2월 27일 예정된 김천상무와의 개막전을 준비한다. 이우형 감독이 지휘하는 안양은 벌교에서 승격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벌교는 프로구단들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안양은 새로운 전지훈련지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안양 관계자는 "벌교 스포츠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계획과 달리 벌교로 이동하게 됐다"며 "감독님께서 지인을 통해 경기장 잔디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운동장 상태도 좋고 전라도의 음식이 좋아 벌교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벌교 스포츠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는 FC안양 선수들. <FC안양 제공>

## 광주FC, 2월 28일 수원삼성 상대 첫승 사냥

### K리그1, 2월 27일 개막

광주FC가 수원삼성을 상대로 2021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2021시즌 K리그1 33라운드까지의 일정이 28일 발표됐다. 2월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1시즌 대장정이 시작된다. 김호영 감독이 새로 지휘하는 광주FC는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수원삼성의 안방으로 가서 개막전을 치른다. 홈 개막전 상대는 울산현대로 낙점됐다. 광주는 3월 6일 오후 4시 30분 안방에서 울산과 홈 개막전을 갖는다. 전북과 서울의 공식 개막전은 새 사령관들의 맞대결로 전개된다. 전북과 서울은 각각 김상식, 박진섭 감독에게 올 시즌 지휘봉을 맡겼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손준호, 이도국 등이 떠

난 공백을 일류체코, 류재문, 최영준, 김승대로 채우고 K리그 5연패 도전을 시작한다. 서울은 주장 기성용을 앞세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새로 영입한 나상호, 박정빈 등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대구FC와 수원FC가 시즌 첫 대결을 한다. 28일 오후 2시에는 포항스틸러스와 인천유나이티드가 포항스틸러스에서 격돌한다. 공휴일인 3월 1일 오후 2시에는 흥명보 감독 체제로 변신한 울산이 강원FC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탄천종합운동장에서는 1년 만에 1부리그로 복귀한 제주유나이티드가 성남FC와 대결한다. 2년 연속 최정전까지 우승 경쟁을 벌였던 전북과 울산의 시즌 첫 맞대결은 오는 5월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수원삼성과 서울의 첫 '슈퍼매치'는 3월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고, 포항과 울산의 첫 '동해안 데비'는 3월 13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진다. 수원FC의 승격으로 '수원데비'도 준비됐다. 첫 '수원데비'는 3월 1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금요일 밤의 축구도 계속된다. 각 팀 당 1회씩 총 12번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을 통해 금요일 야간 경기가 진행된다. 시즌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4월 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대구의 맞대결로 예정됐다. 한편 포항과 대구가 치르는 ACL 플레이오프 경기(4월 14일), 뒤이어 열리는 ACL 조별리그(4월 21일~5월 7일) 기간 K리그1은 휴식기를 갖는다. 4월 11일 9라운드 일정이 끝난 뒤 숨을 고르는 K리그1은 5월 21일 재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8일 대한체육회장 순회간담회가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흥(왼쪽에서 네번째) 대한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이 광주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평형 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천규 서구체육회장, 구제길 동구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정창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간사. <광주시체육회 제공>

##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등 법제화 노력할 것”

### 이기흥 체육회장, 광주·전남 간담회

대한체육회장 재임에 성공한 이기흥 회장이 광주·전남 체육회를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8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대한체육회장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구제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광주 체육회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비 방안, 민선 회장 선출, 단체 운영, 특수법인 설립 등이 거론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특히 시체육회와 구체육회는 안정적인 예산지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상생 발전 등 체육계의 미래 지향적인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전남도체육회에서 순회간담회를 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총상금 10억...2월 'K당구' 열기 속으로

### 프로당구 PBA 슈퍼시리즈 한달동안 4개 대회 잇따라 열려 13개국 26명 해외선수도 입국

프로당구협회(PBA)가 2월 한 달 동안 총상금 10억원 규모의 슈퍼 시리즈를 개최한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4개 대회를 열 예정으로, 시작은 팀 리그 마지막 6라운드다. 팀 리그 6라운드는 2월 1~5일 개최되며, PBA 팀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자를 가리는 마지막 기회다. 두 번째 대회는 정규투어 PBA·LPBA 5차 대회로 설날 연휴인 2월 10~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 투어로 시드 확보 및 최종전인 PBA·LPBA 월드챔피언십 진출을 위해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세 번째 PBA 팀 리그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은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여섯간 진행된다.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팀 리그 1~6라



쿠드룡 김가영 서현민 LPBA가 1억원(총상금 1억5000만원)이다. 2월에 치러질 4개 대회의 총상금은 10억원에 이른다. PBA 관계자는 "슈퍼 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총 13개국 26명의 해외 선수들도 입국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2월 프로당구 슈퍼 시리즈는 전 세계 당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2월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강동희 광주시장애인골볼협회장 공식 취임

강동희(49·사진) 광주시장애인골볼협회 신임 회장이 정기자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했다. 강 회장은 2020년 11월 20일 제2대 광주시장애인골볼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강 회장은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안마사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10년간 지역 어르신 대상 안마 봉사활동을 했다. 2017년에는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진동호회 '상상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2013년에는 광

주시장 표창패를,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강 회장은 "향후 골볼협회 발전을 위해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17년에 설립된 광주시장애인골볼협회는 시각장애 체육인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 '골볼'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세자매
4관	소울, 런
5관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런
6관	소울
9관	소울, 북스마트
7관 씨네키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케넥트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8관 씨네키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캐롤, 도굴, 이웃사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